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지 가치·위상 높이기 본격화

발굴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사업소 공룡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해마다 학술세미나·학회 행사
공룡 새 브랜드 창출도 나서

해남 공룡박물관 야외공원.

해남군이 우항리 공룡화석지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

해남군은 9일 우항리 공룡화석지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학술대회-해남공룡화석지 발굴과 연구의 회고와 전망'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에 대한 종합학술조사가 실시된지 25년째로, 1998년 진행된 종합학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공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됐다.

지난 2007년 화석지 현장에 건립된 공룡박물관은 국내 고생물·공룡박물관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 알로사우루스 진품 화석을 비롯한 공룡 실물화석 45점 등 500여점의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화석지 발굴 25주년을 기념해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최초 우항리 공룡화석지 발굴을 주도했던 허민 한국공룡연구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우항리 공룡화석지의 학술적 성과와 발전전망을 논의했다.

허민 교수의 기조강연과 황구근(전남대), 장태수(전남대), 오창환(충북대), 정종윤(전남대)의 연구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지질·고생물학계 원로인 이용일(서울대 명예교수), 백인성(부경대 예교수), 박정웅(숭문고 교사)의 활발한 토론도 진행됐다.

해남군에서는 공룡에 대한 브랜드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2022 하반기 진행된 조직개편에서 기존의 공룡화석지사업소를 공룡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마다 학술세미나와 학회 행사를 지원해 국내 공룡화석지에 대한 연구를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 공룡화석지가 발굴된 지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니만큼 해남 공룡화석지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전역으로, 또한 세계로 널리 알려지는 기회로 삼고, 지질·고생물학 전공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천연기념물 제394호로 지정돼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자연사 제2호에 선정되는 등 지구과학 자료로서 가치 또한 인정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익룡의 발자국과 보행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생 오리류의 조상으로 알려진 물갈퀴 새 발자국, 정교하게 남아있는 대형공룡의 발자국, 절지동물 흔적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백악기시대 화석을 집대성한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1996년 황산면 공룡화석지에 대한 기초학술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국제학술심포지엄, 1998년 진행된 종합학술조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학술조사를 통해 우항리의 가치를 학계에서 인정받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남군·황산면·우항리' 지명이 화석지의 학명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최근 평화광장 상가 앞에 설치된 가랜드 전구 가로등이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목포시 제공〉

목포 평화광장에 가랜드 전구 설치…감성적 분위기 연출

300m 구간…겨울밤 명소 기대

목포시가 겨울 관광철을 맞아 평화광장 상가거리를 감성적인 분위기로 연출했다.

목포시는 지난 4일 평화광장 상가 앞 가로등 150m 구간과 바닷가 인도 가로등 150m 구간에 가랜드 전구를 1차로 설치한데 이어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랜드 전구 설치는 지난달 개최한 목포항구축제의 '건맥구이터' 존에서 감성캠핑장을 연출하며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은 가랜드 LED전구를 평화광장 야간조명으로 임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목포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콘텐츠인 '목포해상W쇼', '항구 버스킹', '야간 시티투어' 등과 연계한 조명이 설치되면서 평화광장의 겨울밤은 낭만적인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게 됐다. 평화광장 상권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시는 목포해상W쇼가 오는 26일 올해 공연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24일과 31일 특별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상케이블카, 상설 문화예술공연 등 야간 관광콘텐츠를 활용하고 더욱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근화건설, 목포 평화광장 '호텔베아채' 착공

지상 8층 총 42실 규모

지역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1000만 관광객 유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목포시에 향토기업이 짓는 호텔급 숙박시설이 선보인다. 〈조감도〉

근화건설(주)은 목포 관광 1번지로 불리는 평화광장 인근에 지상 8층 총 42실 규모로 호텔베아채 건립하기로하고 10일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는 2024년까지 1500만명 관광시대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지만 호텔급 숙박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년 만에 열려 21만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다녀간 2022년 목포 항구축제도 관람 위주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밀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한 점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경유형이 아닌 체류형(숙식형)으로 변화해야만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근화건설 관계자는 "목포관광의 중심 평화광장 인근에 호텔베아채 착공하기로 한 것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근화건설주식회사는 1989년 창업해 근화밀레니엄빌리지, 네오빌아파트, 블루빌아파트, 삼학베아채아파트 등을 공급했다. 근화베아채, 베아채스위트, 베아채비올레, 옥암베아채 아파트 등 옥암, 남악신도시에도 2600세대를 완공했으며 2018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베아채아파트 331세대를 준공했다. 이와 함께 2018년 11월 강진에 27홀 규모의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과 2019년 다산베아채 리조트를 완공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암멜론 28t 홍콩 수출…해외시장 개척 박차

영암군은 최근 영암낭주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영암멜론' 홍콩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선적식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문수전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장, 이재면 영암낭주농협조합장, 케이멜론공선출하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9년 대만, 홍콩 수출을 시작으로 꾸준히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영암멜론은 이번 7t을 포함해 오는 20일까지 4회에 걸쳐 28t을 수출할 계획이다.

영암멜론은 낭주농협 케이멜론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기술 컨설팅을 통한 품질의 규격화와 검역 요건 준수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해외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 우수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농가 및 수출업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수출기반을 구축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우수농수산물 팸투어로 '청정전남 Blue이코노미' 알리기

전남새마을회 농촌체험·탐방
전국 협의회장단 등 200여명 참여
특화 농산물 알리고 관광지 소개

지난 8월 우리지역 특산품 알리기 팸투어 참가자들이 홍보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새마을회가 2022년도 전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청정전남 Blue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전남 우수농수산물 알리기 팸투어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전남 우수농수산물 알리기 팸투어는 지난 5월 시작해 8월 26일까지 전국 시도시군구 협의회장단 및 부녀회장단 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팸투어는 우수농산물 특강, 농촌체험활동, 주요문화관광지 탐방 등을 통해 전남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도 소개하는 동시에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해 우리 농수산물을 바로 알고 소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팸투어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생명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남 Blue농수산 자원들 중 전국 고구마 생산량의 3분의1을 차지하고 국토 최남단 땅끝의 드넓게 펼쳐진 황토밭에서 재배하는 해남산 고구마, 해풍을 맞고 자라 더 알차고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진도군 특화작목인 미니밤호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산 천일염과 육질 좋은 신안산 가을 새우젓, 청정해역에서 자라 맛과 향이 좋고 칼슘과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이 풍부하고 알긴산도 함유한 완도산 미역, 다시마 등 전남 우수농수산물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이귀남 전남새마을회 회장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이자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남도의 문화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 동시에 전남산 우수농수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팸투어를 마련했다"면서 "전국 새마을가족들이 우리지역 농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만큼 전남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할뿐더러 전남 방문의해 기간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마을세무사에 무료 상담 받으세요"

지난해 주민 66건 세무상담

진도군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군민들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고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되고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는 제외된다.

지난해 진도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66건의 세무상담을 실시했고 올해는 제4기 진도군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김용 세무사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누리집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등으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1차 상담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40-3308)으로 하면 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